

I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

토마스 네일 Thomas Nail

덴버대학교 University of Denver

1부

이주의 철학과 윤리



서론

우리는 경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온갖 종류의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경계가 말 그대로 21세기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을 정의한다. 세계화가 찬양되고 국제적 이동성의 필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형의 경계들이 존재한다. 수 마일의 새로운 철조망, 수 톤의 새로운 콘크리트 방호벽, 수많은 연안 구금소, 생체여권 데이터베이스, 학교와 공항에, 또 전 세계의 여러 도로를 따라 설치된 모든 종류의 검문소 등 지난 20년 동안, 특히 9/11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의 새로운 경계들이 출현했다.

오늘날의 사회적 이동성은 모든 곳에서 분열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집과 제도, 그리고 국가를 에워싸는 영토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이동성은 정치적으로 군사 분쟁과 국경 장벽, 그리고 출입함에 의해

축출된다. 또 사법적으로는 신분증(비자와 여권)과 구금소(와 감옥), 경계로 나뉘어진 시간대들의 전체 일정표에 의해 제한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동성이 경제적인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 사회구조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시장·치안·경호·정보 경계의 급속한 부침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자의 형상』과 『경계의 이론』의 핵심에 놓여 있는 상호 관련된 두 개의 테제를 제출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계와 이주자가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하향식 권력 구조에 의해 산출되는 수동적 효과에 불과한 게 아니다. 이는 역사적이고도 개념적인 논점이다.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는 애당초 이주자들이, 또 국가를 생산한 다양한 경계짓기의 과정들이 있었다. 국가 또는 여타의 사회구조체가 확립되고 나서야 그것들은 경계를 재생산하고 인구의 일부를 이주자들로 축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계는 사회 자체의 재생산과 팽창에 요구되는 물질적이고 동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와 이주자는 국가에 선행하고 이를 넘어선다. 이들이 없다면 영토도 민족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심지어 팽창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이주자 잉여의 축출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예컨대, 이주자들은 국가 내에 거주하면서 구성적인 사회적 노동을 국가에 제공하지만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경계를 따라 무수한 주변화를 겪는다. 이주자들은 시민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사회구조체를 수행하고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진다. 또 시민은 스스로를 자신의 기원이자 법의 토대로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식민적 과거를 숨기려 애쓴다.

두 번째 테제는 오늘날 이주자의 위치가 급속도로 증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경계 역시 빠르게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주자의 종류도 늘어나며 그 역도 마찬가지

이다. 둘은 동일한 사회적 이동성 체제의 일부로서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이동성이 분할되는 방식이 많아질수록 사회체 내에 존재하는 이주의 차원 내지 양상 또한 많아질 것이다. 마치 법이 많을수록 이주자들도 많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한 점에서 이주자는 존재의 본질이나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위치성이다. 이주자는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변화하는 여러 동시적·경쟁적 경계들의 유동적 교차점이다. 이주자는 국제적 경계를 넘는 이들이 아니라 복수의(영토적·정치적·법적·경제적) 경계 체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이들이다. 여기서 경계는 사람들을 한 국가 내부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두 개의 테제는 이상과 같다. 본 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부분은 하나의 테제를 옹호하는 한편 필자가 경계와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운동지향적인 정의, 또는 “동정치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제1테제

“이주자와 경계는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

이는 요컨대 사회 자체가 순환, 팽창, 축출의 지속적 운동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 팽창과 수축을 수용하는 경계와 이주자의 이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주자는 사회적으로 축출되거나 박탈되는 정치적 형상이다. 일정하게 이것은 그들의 이동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이거나 그것의 원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주자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자가 있었다. 오늘날 이주자의 수는 10억 명이 넘으며 10년마다 이주자와 난민의 세계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 이주만 해도 향후 40년간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정치이론은 아직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주자의 현상을 서구 정치의 파생물이 아닌 구성적 형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정치이론의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선제하는 시민들의 집합에서 출발하는 대신 먼저 이주자의 흐름, 그리고 그들이 시민과 국가 속으로 순환되거나 침전되는 방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자들이 어떻게 국가 구조에 대한 대항권력과 대안을 구성하는지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9세기 이전 이주자들과 경계가 수행한 구성적 역할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한편 국민국가라는 자유주의적 물신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국민국가 자체가 그것이 무대에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이주와 경계나누기 기술의 기원이 아닌 그 산물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치적 포용의 이념을 단지 형식적인 법적·경제적 지위 등이 아닌 근본적으로 동적인 순환 과정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포용/배제 또는 내부자/외부자의 형식적 개념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환/재순환의 개념이다.

이러한 동정치적 명제 및 경계와 이주자가 수행하는 구성적 역할을 사고하는 한 가지 방식은 칼 마르크스의 본원적 축적론을 급진화하는 것이다.

1. 본원적 축적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한 구절로부터 이 개념을 발전시킨다. 즉, “재고의 축적은 사물의 본성상 분업에 선행[한다.]”¹⁾ 달리 말해, 인간이 소유자와 노동자로 분할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분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우월한 자들은 당연히 권력과 재고를 축적한 다음 이의 행사를 통해 열등한 자들의 종속을 연속화한다. 스미스에게 이러한 과정은 그저 자연적 현상에 불과하다. 힘 있는 자들은 항상 이미 재고를 축적해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이 인용문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재고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폭력과 축출에 대한 정치경제학자들의 역사적 혼동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다. 시민 중심적 국민국가가 정치적으로 그러하듯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폭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신화화하고 자연화 한다. 마르크스에게 본원적 축적 개념은 구체적인 역사를 갖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전자본주의적 조건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인클로저와 식민주의, 또 16세기 부랑자 방지법 등을 통한 농민과 원주민의 토지로부터의 축출과 동일시한다. 마르크스의 명제는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와 관습법 하의 법적 지위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축출이 없다면 사유재산의 확장, 따라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본원적 축적이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진행된 일회성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것이 자본주의 내에서 지속적인 논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본주의는 팽창을 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 축출과 폭력의 비자본주의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²⁾

필자가 제안하는 축출을 통한 팽창이라는 아이디어는 본원적 축적의 개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장한다. 첫째, 기성의 사회이동 형태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진전(팽창)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축출)은 결코 자본주의적 사회이동 체제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초기 인류 사회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토지 경작과 동물 사육의 발전(영토적 팽창)은 율타리치기라는 구체적 기술을 통해 인구의 일부를 축출했다(영토적 박탈).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영토를 농지로 바꾼 수렵-채취자뿐만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 잉여 농민들을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축출은 두 가지 점에서 사회적 팽창의 조건이 된다. 사회적 축출은 일정한 내부적 한계(예를 들어, 주어진 영토의 수용 능력)에 도달했을 때 일부 인구의 제거를 허용하는 내적 조건인 동시에 다른 집단(수렵-채취자들)의 땅으로 팽창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한계 밖에 있는 일부 인구의 제거를 허용하는 외적 조건이다. 이 경우 영토적 팽창은 인구의 일부가 이주 유목민의 형태로 축출되고 주변의 산과 사막으로 밀려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다.

우리는 이후 고대 세계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작용했음을 보게 된다. 고대 세계의 지배적 정치형태였던 국가는 구체적인 경제 장벽의 기술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장벽은 적들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중동과 지중해의 산에 살던 수많은 야만인들을 (정치적 박탈을 통해) 노예로 포획했다. 성장하는 정치 질서의 팽창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바로 전쟁, 식민주의, 대규모 집단노동과 더불어 야만인 인구를 축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벽 안에 가두어지고 장벽 밖으로 몰아내져야 했다. 이러한 기술은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본원적 축적에 대한 선행 이론과 여기서 제시되는 보다 확장된 이론의 두 번째 차이는 마르크스가 주목하는 이러한 사전 축출 내지 사회적 박탈 과정이 단지 영토적이거나 사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팽창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토지에서 몰아내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축출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도시에 장벽을 두르고 인클로저와 감금의 격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불법화하며 신원확인과 검문 기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출은 정치적 주체가 사회 질서 내의 모종의 지위를 일정하게 빼앗기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는 몇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즉 영토적 축적, 정치권력, 사법 질서, 경제적 이윤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팽창한다. 본원적 축적론과 축출을 통한 팽창의 동적 이론이 유사한 점은 대부분의 사회적 동적 권력의 팽창 역시 동적인 사회적 축출이라는 사전적인, 또는 본원적인 폭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이러한 축출을 실행하는 기술이자 사회체제이다. 본원적 축적의 개념은 이전 사회의 출현과 재생산에서 작용한 보다 일반적인 동정치학 논리의 한 역사적 사례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조차 『자본』에서 이러한 해석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진술을 하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생산 운동 일반은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이를 “주기성”이라 부른다. “천체가 일단 어떤 운동에 던져지면 끊임없이 그 운동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 역시 교대로 일어나는 저 팽창과 수축 운동에 한번 투입되면 계속 그 운동을 되풀이한다.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조건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 과정 전체의 부침은 주기성의 형태를 취한다.”³⁾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모종의

사회적 생산에 종사한다. 행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애당초 사회를 낳은 조건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일정한 논리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이어서 그 효과는 사회적 순환의 되먹임 고리 속에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생산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순환 운동이다. 요컨대, 사회의 팽창을 위한 물질적인 동적 조건은 경제들(올타리, 장벽, 감옥, 검문소 등)을 사용해 토지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으로 주변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보다 손쉽게 재순환될 수 있는 소수자들의 체계를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인클로저로 박탈당한 부랑자들이 경제적 프롤레타리아로 변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배적 사회체계 또한 축출과 주변화를 통한 자체의 팽창 체계를 보유한다.

2. 축출에 의한 팽창

따라서 축출은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박탈을 내포하는 사회적 운동이다.⁴⁾ 사회적 축출은 단지 토지 지위의 박탈(즉, 토지로부터의 제거)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사법적·경제적 박탈이라는 다른 주요한 세 가지 사회적 박탈 유형이 포함된다. 우리가 운동을 외연적이고도 내포적으로, 즉 양적이고도 질적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축출은 지위가 박탈되는 질적 전환으로 시공간 상의 외연적 운동을 초래하거나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주 소수자의 사회적 축출은 언제나 자유로운 것도, 언제나 강제된 것도 아니다. 이주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주자들이 이주의 사회적이거나 질적인 조건, 또는 특정 사회질서로부터 축출되는 정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축출은 그 조건이 자유롭거나

개인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정되고 강제되는 한에서 여전히 하나의 몰아냄^{driving-out}이라 할 것이다. 일시적일 뿐이고 그 정도가 작다 하더라도⁵⁾ 축출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지위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팽창은 무언가의 통과를 허용하는 개방의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개방은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연장 또는 뻗어나감을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팽창은 선택적 개방을 통한 확대 내지 연장이다. 사회적 축출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팽창의 과정은 엄밀하게 영토적이거나 일차적으로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동적 권력^{kinpower}의 내포적인, 또는 질적인 성장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 확장되는 사회적 순환의 결합이 내포적인 동시에 외연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식민주의는 분명 영토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사법적·경제적이기도 한 팽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동적 권력은 구성적 순환에 의해 정의되지만 이러한 순환은 이원적 논리에 따라 가능하다. 한쪽 끝에서 사회적 순환은 흐름을 순환계 외부로 몰아내는 운동, 즉 축출이다. 이는 추방, 노예화, 처벌, 실업 등을 통해 특정 흐름들의 방향을 바꾸고 이를 몰아냄으로써 달성된다. 순환의 다른 쪽 끝에서는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권력의 성장을 통해 새롭게 결합되는 흐름이 개방되고 수용된다. 축출을 통한 팽창은 사회의 일부 성원들이 자신들의 소수자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사회적 권력이 팽창하는 사회적 논리이다. 권력은 단지 억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원의 문제이다.

경제와 이주자가 사회적 재생산과 팽창에서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되거나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 하에서 재순환된다. 예컨대, 19세기 미국에서 멕시코와 중국 이주자들은 단지 배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유입되어 전국의 철도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으며 이후 철도가 완성되면 서 법적으로 추방되었다. 오늘날 이주자들은 재생산 노동의 보충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사회재생산 형태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잉여 이주 재생산 노동을 서구 국가들로 재분배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경제적 자유주의의 무역 정책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세계 정부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적 이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의 주요 효과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주 재생산 노동의 축출과 축적을 통해 서구의 권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이주 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순환이 더 많은 흐름에 개방되는 한편 이전보다 강력해지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것은 이주 흐름의 분리 또는 축출에 의존했다. 달리 말해, 역사적으로 권력의 팽창은 사회적으로 구성적인 이주 인구에 의존해 왔다.

제2테제

“오늘날 이주자 위치의 증가는 경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1. 경계는 이동한다.

경계가 이주민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방식은 이동을 통해서이다. 이주자의 위치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증식하는 것은 바로 경계 자체의 이동성이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명제는 우리의 직관을 크게 벗어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계가 너무 경직되고 폐쇄적인 게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다.[지젝] 그것은 경계가 너무 유연하고 변동적이어서 — 경계는 그것이 분리하는 양 편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인다. — 결국 두 면으로 이루어진 위상학, 따라서 이것에 의해 정의되는 도형들을 바꾸기 때문이다. 경계는 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많은 가변적 변수들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가 이동에 따라 분석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물이 경계를 가로질러 움직인다고거나 그것을 “침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경계는 단지 사람들의 흐름이 지나가는 정적인 차단막이나 공간이 아니다. 방대한 문헌들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다루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경계 자체의 이동을 다룬 분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소위 흐름과 이동성 fluidity/mobility의 이론가들조차 “사람들의 국제적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 경계 풍경 borderscape”⁶⁾이라거나 “흐름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형태”⁷⁾와 같이 여전히 경계를 일차적으로 외연적이고 공간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동성의 의미는 순전히 “은유적”⁸⁾으로만 사용된다.

경계의 운동은 하나의 은유가 아니다. 말 그대로, 또한 실제적으로 경계는 여러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⁹⁾ 첫째, 경계 자체가 움직인다. 이는 특히 지형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의 운동,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래와 조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계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겪는 침식, 퇴화, 분해와 같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도 운동한다. 여기에는 나무 울타리를 썩게 하는 비와 홍수, 건물과 탑을 태우는 불, 울타리와 문의 구멍을 부식시키는 녹, 건물 아래의 토양을 없애는 침식 등이 포함된다. 모든 물리적 경계는 끊임없는 자기분해의 운동에 종속되며 이는 예를 들어 이러한 취약 지점을 통해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는 악마의 고속도로(Devil's Highway)와 같은 치명적 상황을 이주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당국 스스로가 이러한 취약 지점을 방지할 수도 있다.

둘째, 경계는 다른 이들에 의해 이동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둘 이상의 사회적 당사자들이 토지 분할을 둘러싸고 협상이나 투쟁을 벌이는 영토 분쟁, 사람·토지·자원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분쟁, 법 영역이나 치안관할의 사법적 분할, 무역 장벽·관세·노동 규제·생산 구역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노동개혁 등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지형에 의해 구분되는 넓은 지역이 포함된 경계들은 서안지구의 정착촌처럼 끊임없는 협상과 운동의 장소로 지속할 수 있다. 경계의 부침에 따라 이주자의 지위 또한 요동쳐 그는 적 편에 있는 투사가 될 수도 정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계의 유지에 요구되는 지속적인 관리 과정처럼 경계는 그리 뚜렷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움직인다. 정기적인 개입과 재생(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조치도 포함)이 없다면 경계는 부패하고 망각된다. 또 다른 이들에 의해 탈취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경계는 정적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물질적으로 재생산된다.

닉 본 윌리엄스(Nick Vaughan-Williams)가 적고 있듯, “이러한 경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장과 반론의 양태를 통해(재)생산되며 무엇보다 살아진다(lived). 달리 말해, 경계는 자연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이 연루되는 역사적으로 우연하고 정치적으로 격렬한 역동적 현상이다.”¹⁰⁾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치안 권력의 자의적 사용, 이주자에 대한 정보 수집, 뇌물의 미시경제 등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에서조차 여전히 누구나 의심스러운 이주자를 연방 이민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의 경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주자 스스로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대해 품고 있는 흔한 정신적 이미지는 개념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경계는 모터나 분기점에 더 가깝다. 다른 여는 모터와 마찬가지로 경계 기술은 관리·재생·공급·보호·시동·지불·수리되어야 한다. 종족적·종교적·민족적 경계조차 누가 어느 카페·교회·학교 등에 출입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자체의 기술을 보유한다. 더욱이, 이것은 현대 생활에만 적용되거나 현대 생활에 주로 적용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경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다중적이었다.¹¹⁾ 이런저런 형태의 관리는 언제나 그 존재의 일부였다.

따라서 초기 경계이론가들이 제기한 자연적 경계와 인위적 경계의 구분은 유지될 수 없다.¹²⁾ 이는 오늘날의 경계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걸쳐 “자연적” 경계는 언제나 경계로서 “인위적” 인간사회에 의해 제한되고 다투어지며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강은 세금, 교량, 사회적으로 다투어지거나 수용되는 분열과 같은 모종의 사회적 영향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하나의 경계로 기능한다. 덧붙여, 소위 인위적 경계는 언제나 지구나 사람의 어떤 “자연적” 흐름을 절단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사례는 2백만 입방 야드의 토양(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채우기에 충분한 흙)을 근처 산 정상에서 옮겨와 샌디에고 외곽 경계의 자연적으로 “불안정한” 지세를 바꾸려 했던 미 정부의 시도이다. 이는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 도로와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처럼 경계가 이동하고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에 의해 표시되는 이주자의 위치 역시 그러하다. 예컨대, 밤사이 러시아군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한다면 조지아에서 잠들었다 러시아에서 깨어나 소수자로 체포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들었다 도착했을 때에는 트럼프의 여행금지령에 따라 테러 용의자로 깨어날 수도 있다.

2. 경계는 하나의 순환 과정이다.

경계가 이주자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식은 순환에 의한 것이다. 경계는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포용과 배제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순환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경계의 이동성에서 비롯된다. 경계가 언제나 사이에 있고, 또 이동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경계는 결코 누군가나 무언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계가 경험적으로 사회의 외곽에 있는 동시에 그 내부에도 있으며 포용의 선별 과정을 정기적으로 바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배제가 정체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제는 언제나 유동화되고 순환된다.

실질적으로 안과 밖의 경계 모두 모든 사람 안에 들어거나 바깥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 예는 없다. 이와 관련된 경계의 거둬들인 실패를

고려할 때 포용과 배제의 이원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는 거의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완전히 포용하지도 배제하지도 못하는 경계의 실패는 단지 오늘날 탈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¹³⁾ 경계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었다.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이나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이 역사적 장벽의 위력을 보여주는 소위 가장 위대한 사례들조차 그것은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의 가장 성공적이고도 의도된 기능은 노동과 조세의 사회적 순환이었다.¹⁴⁾ 이는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장벽과 더불어 지속된다.¹⁵⁾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불법 월경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른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밀거래의 대부분은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경계가 지닌 주요 효과 중 하나는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으로 신체를 순환시키는 것이다.[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다.]

하지만 경계의 순환은 단지 지속적인 분할의 과정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의 분할 기술은 또한 분할되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 분할되는 것은 재순환되고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심지어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분할되는 것은 축출되고 치위쳐야 한다. 분할은 단 순한 봉쇄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순환되는 것은 분할 이후에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따라서 데이빗 뉴먼David Newman이 적었듯 “사회적 배치에서 보편적 의미를 가진 것은 경계선 자체라기보다 경계나누기의 과정”¹⁶⁾이다. 경계는 한계점, 즉 (노동자, 범죄자, 통근자 등) 회귀하는 것이 그 배후에서 다시 특정한 조건으로 회귀하는 지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아감벤이 말하듯 경계는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실용적으로 재분배한다. 예컨대, 미등록 이주자들은 대부분 차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기능적으로 “불법화된” 사람들로서 지하 경제로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
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
식>에서 발표된 원고 "Migration and the Philosophy of
Movement"를 저자의 동의 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토마스 네일 (덴버대학교 철학과)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은 덴버대학교(the University of Denver) 철학과와의 교
수입니다. 토마스 네일의 연구는 이동과 이동성의 철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작 작가로 13권의 책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
Theory of Border (2016), 『존재와 운동』(2018),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2020), Theory of the
Object (2021), 그리고 Theory of the Earth (2021) 등이 있습
니다. 그의 단행본 중 일부는 아시아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
며, 『존재와 운동』(2018)은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글은 국
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의 기조연설
로 초청되었으며 저자의 주요 저작인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와 Theory of Border (2016)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II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Rajesh C. Shukla

세인트 폴 대학교 Saint Paul University

들어가며

지난 40여 년간 많은 저명한 정치이론가들과 지식인들은 고전적 형
태의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구성과 그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정치적 현실과 쟁점을 다루
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인 『인정의 정치』에서 찰스 테일러는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불인정이나 오인은
피해를 주는 동시에 누군가를 그릇되고 왜곡되며 축소된 존재 양식에
가두는 억압의 형태가 될 수 있다"(Taylor 1992, 25)고 주장한다. 그 종류를
불분하고 동료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관련해 누군가를 확대하
는 것이 도덕적·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정체성 정치가